

국립의료원 간호원 사건 수습 경위

대한간호협회 총무 윤 수 복

지난 10월3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소위 “국립의료원 간호원의 2차 파동”은 일반간호원들의 권익 및 복지와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원인(遠因), 제1차 파동과의 관련성 기타 사건주변에 깔린 문제들이 많고도 복잡하였다. 또한 국공립기관 간호원을 위한 직급조정과 간호직 수당인상작업이 행정부에서 진행중이라고는 하나 아직 그 전모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석이나 결과의 보고는 하기 어렵겠고 다만 그 몇날동안의 진행된 본 협회로서의 활동경위를 인지식(日誌式) 그대로 회원들에게 전달해서 이미 매스콤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을 補強코저한다.

10월 3일(토)

1) 오전7시 방송에 “국립의료원 간호원 전원이 환자결을 떠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먼저들은 김복음이사가 곧 회장과 총무에게 전화연락, 9시정자 본회 새건물에서 긴급상임이사회 개최, 다음 일들을 결의 진행키로하다.

○. 회장단은 곧 보사부 장관관 방문 “인사발령을 철회토록 중용할것”

○. 의료원 간호원측으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서울시 지부로 하여금 직접 진상조사 보고토록 하되 매마침 연휴일임으로 실행행사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유키로 하다.

2) 이성덕 서울시 지부장의 진상조사보고는 간호원 전원이 이미 오전7시에 사표를 써놓고 병원과 기숙사를 떠났고 간호과장실도 비워있다는 것이다.

3) 홍신영 회장, 이영복 부회장과 총무는 보사부에게서 홍종관 차관을 면담 보복 인사조치를 한 당국의 背信을 규탄하니 보사부측은 절대로 보복인사가 아니라고 역설하다. 보사부측의 졸렬한 행정을 지적 즉각 인사발령철회를 중용하였다.

4) 다시 회의를 계속 의료원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특수부서만이더라도 타병원 간호원을 동원 대비하게 하도록 서울시지부와 합의하다. 특히 전번 김영자 사건시 주사거부를 참동하는 이들도 병원측으로 하여금 예비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 주지않았다는 여론을 언급하면서 시내 간호원장들의 협조를 얻도록 하였다. 휴일이기는 하나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일병원등에서 협조할 것을 알려왔다.

5) 한편 김복음, 이경식 두 이사는 의료원측의 간호원 동원 수락여부를 타

진했으나 유순한 과장은 간호원 동원을 관성하지 않는다고 보고하다.

6) 10시경부터는 마스크·몸등 각처로부터 질문이 빗발치듯하여 김순자 이사는 사무실에서 전화받기에도 바빴다.

7) 오후 2시경 의료원 최영순 부간호과장이 겨우 연락되어 논의 후 3시 20분에 감독급 간호원 10여명과 장시간 합석토의 했다.

간호과장실을 지키면서 또한 마스크·몸을 향하여 간호원들의 입장을 바로 대변하는 일이 급하므로 우선 최 부간호과장만이라도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8) 보사부 소속정 간호과장에게 인사조치의 부담성을 상부에 강력하게 반영토록 장려하려고 이사단이 찾았으나 의료원에 있다면 소과장은 밤10시까지 기다려도 맞나지 못했다.

10월 4일(일)

1) 회장단, 김복음 이사, 서울시지부장이 9시부터 사무실에 모여서 라디오기자들의 방문, 전화를 통하여 보사부의 강경한 태도, 환자들의 불만과 불안, 일부 사회여론의 악화동 사태를 파악하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다.

2) 처벌하겠다고 時限을 정해놓고 발표를 거듭하는 보사부장관을 꼭 만나서 증재할것을 결정 회장단과 김복음 이사가 보사부청사와 장관력을 수차 왕래하던 끝에 청사에서 회견하다. 처벌만 고집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올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하여 장관은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하고, 그들이 돌아온후에는 인사이등 기타 일체의 보복적인 처사를 하지않을것을 재삼 약속받고 우리도 간호원들을 돌아가도록 중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오후 4시반 동아방송과 국립중앙방송을 통해 다음 내용을 홍신영 회장의 육성으로 호소하다.

나는 대한간호협회 회장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여러분의 직장인 의료원으로 돌아가서 환자 간호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간호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요 또한 모든 문제해결과 목적달성을 하는 최선의 길이 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일을 위하여 계속 여러분과 함께 힘쓸 것입니다.

4) 저녁 8시경 후 산발적으로라도 돌아오는이들을 맞으러 의료원에 갔으나 문앞에 “간호원 등록처”라고 써부친 책상을 놓고 낯선 남자가 두세명 서성거정리는 불쾌한 분위기였다. 마침 그곳에 나온 의정국장과 의료원 사무국장, 진료 부장등을 만나서 시정을 요구 하였다.

10월 5일(월)

1) 뉴스와 조간신문을 통해서 당국의 처사를 힐책하면서도 간호원들의 계속 파업을 비난하는 사회여론을 듣고 북파할 수 없어서 오후 2시에 본회 상임

이사, 서울시지부이사 및 시내 간호원장들의 긴급합동회의를 소집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후 대책을 모색하다. 이자리에서 의료원 간호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해명서를 일간신문에 내기로 결의, 해명서 작성위원으로 협회측으로 전산춘, 이경식 이사 서울지부에서 이성욱, 하영수 이사를 선출하였다.

2) 5시경 의료원간호원 대표들이 직접 말하는 그들의 입장을 해명서에 첨부하고저 이성덕, 최정자, 이성욱, 세분이 유과장과 감독간호원들을 만나러 갔다. 3시간후에 돌아온 보고는 이미 7시 방송에 유과장 자신이 “돌아와달라”는 방송을 한 것과 해명서 발표에 대한 감독간호원들의 의견은 별로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다음날 아침까지 보류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안은 꽤 두어야 겠기에 각위원에게 제차 연락하고 11시까지 대기하였다.

10월 6일 (화)

1) 문화방송과 동양방송에서 이사건을 위한 텔레비전 푸트에 초청이 있어 마침 좋은 해명의 기회로 알고 이영부 부회장과 총무가 각기 나갔다.

2) 감독간호원들은 병원의 無看護상태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긴박성을 알고 있으나 수간호원과 일반간호원들의 태도가 강경하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들끼리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단결이 시급히 요청됨을 파악 본회관 2층에서 그들끼리의 회합을 주선해서 연락이 가능한 80여명이 모여서 장시간 토의하였는데 이자리에서 그들이 병원당국에 제출할 5개항목을 결의했다고 한다.

3) 감독간호원과 다시 협회 회장단이 직접 그들 전원을 만나서 보사부와의 접촉경위와 그 시점에서 사회여론과 간호원의 기본사명을 지버릴수 없는 본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다.

4) 저녁7시경 약80명이 의료원 앰블란스로 기숙사에 들어갔다.

5) 8시반경 본회장단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료원 안병훈 진료부장이 사건발생중 간호원들에 대한 무례한 발언을 한데 대한 공개사과를 하는 것과 간호원들이 제출한 5개조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까지 보고 10시만에 의료원을 떠났다.

그후 본회 대표는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을 수차 방문, 직급인상과 간호직수당인상에 관한 본회의 건의건을 기필코 반영해 줄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 건의는 지난 4월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되어서 급번 사건발생 이전에 이미 당국에 서면으로 전달된 바 그 내용은 전문직간호원의 기본직급은 4급부터 하고 간호직수당을 현재의 수당액의 500%로 인상해 달라는 글자이다.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주장하면서 말은바 각자의 책임을 다할것을 기대한다.

실은 의학교육이나 간호교육에 어떤 차질을 의미함으로 의료요원간에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의학교육 과정에 적어도 가장 가깝게 같이 일하는 간호원의 역할을 소개해주고 간호원에 대한 전문적가치관을 선행하기 위하여 현대간호 개념을 소개시킬 수 있는것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지난 5月末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되었던 사회의학 세미나에서도 채택된 건의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다시는 실행행사로 이끌게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원 당국은 의료원內에서 해결할 수 있는 치우개선에 관련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의사나 간호원 사이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와 간호에 임하는 모든 의료요원들은 상호 존경, 신뢰를 갖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사당국에서는 한 기관에만 귀를 기울이는 일방적인행정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사조치는 물론 교육과 자격에 합당한 인사 이동에 고려있길 바란다. 일생을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경륜과 연구실적이 있는 분을 일조일석에 보건간호 전문가의 자리에 전보발령을 냈다는 것은 행정능률의 저하는 물론 입장에서 볼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간호협회는 이반을 계기로 회원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 운영을 연구하여야 하며 명실공히 전문직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적극적이고 적각적 반응으로서 사회 여론, 행정부의 처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명예직 회장직을 전담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31페이지 계속)

과거의 병상옆에만 국한되었던 소극적인 간호개념에서 탈피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 속에 파고 들어 건강증진, 질병예방, 장수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병원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전문간호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간호교육도 변화된 간호개념에 적합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수정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간호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자격 간호원을 기르려면 적어도 成年이어야 이런 기능을 완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적어도 12년의 일반교육을 이수한 학생이라야 간호교육을 3~4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보건의료원 즉 Team member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Co-worker로서 국민보건의 역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욕구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보면 간호원의 봉사적인 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의 간호원이 응분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곧장 환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자는 한사람이 늘고 간호원은 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정확한 계산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료한 현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이 뒤 따라야할 것입니다.

(16페이지 계속)

우리들의 지성이 시대에 앞서고, 우리들의 사명과 거룩한 Nighthingale의 공적이 송고하게 표창되어야 한다는 大義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원대한 포부를 마음 담아 작은 소녀가 白衣에 뛰어난 송고한 그 理想의 指標를 定立하자는 호소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파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조용히 “까운”을 다시 입고 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에 어려운 것이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하얀 우리들 마음의 까운 속에 깊이 담아 두면서 떨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위로를 보내 주신 우리들 白衣의 Human에게 알찬 내일의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